

“스승에 감사하는 한 주”

서거석 교육감, 전략회의서... “교권 보호에 더 많은 노력 기울여야” 학력 신장에 “얼마나 성과가 나타났는지 기준... 추진 계획 보완”

“스승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12일 전략회의에서 스승의날을 앞두고 “누구에게나 살아 오면서 자신에게 영향을 준 선생님이 계실 것”이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인권센터를 비롯해 관련 부서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지역 교육장 등이 참석한 이날 전략회의는 학력 신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서 교육감은 “학력 신장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달라”며 “이를 토대로 학



서거석 교육감이 12일 열린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력 신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한층 더 명확하게 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은성 기자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임명장 수여' 이 열렸다.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채용 완료

임용장 수여식 개최... 장애인 고용 확대·장애 인식 개선 첫걸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채용을 완료했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층 접견실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단원 한명 한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임용을 축하했다.

이번에 임명된 단원은 총 8명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8

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서 맞춤형 훈련을 이수한 후,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종 채용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은 트럼펫 3명, 바이올린 3명, 트롬본 1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피아노 1명으로 구성, 오는 26일 첫 출근을 시작한다.

단원들은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 1층 전용 연습실에서 주 2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임용 기간은 2년이다.

향후 도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 공연'을 통해 장애 공감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고용 확대, 예술을 통한 사회참여,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업”이라며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비장애학생들과 지역사회에 감동과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대선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 사전 예방

전북교육청, 내달 2일까지 특별점검... 공직자 정치적 중립위반 행위 등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제2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부무 위반 등 기강해이 행위 △업무지연 등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의 교육 여부와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고의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훈열 감사관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별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공공기관 취업 캠프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9~10일 이틀간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취업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국민연금공단,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의 현직자가 직접 참여해 실무 중심의 직무 멘토링을 진행하고, 외부 면접 전문 강사가 참여해 대상 기관 맞춤형 면접 교육과 실전형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막연했던 공공기관 취업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9~10일 이틀간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취업캠프'를 운영했다.

며 “실제처럼 진행된 모의면접에서 피드백을 받으니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숙경 센터장은 “이번 취업캠프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직자와 면접 전문 강사가 함께하는 실전 중심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근현대 우리 과학자 삶 조명... 학술적 가치 인정

전북대 김근배 교수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 최우수저술상 수상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이 제42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에서 최우수 저술상을 수상했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과학기술 분야 도서의 저술과 출판 활성화를 위해 1983년부터 시행돼 온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로 42회를 맞았다.

시상식은 지난 9일 파주출판단지 메디테리움 의학박물관에서 열렸다. 대표 저자인 김근배 전북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우리 과학의 기반을 다진 근현대 과학자 30인의 삶과 업적을 조명한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다. 김근배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저자들은 15년에 걸쳐 국내 과학기술인들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식민지·분단·전쟁의 격변 속에서도 과학자의 길을 개척한 이들의 삶을 복원해냈다.

책에는 최초의 화학자 리오유, 위상수학의 권위자 권경환, 유기광화학 분야를 개척한 심상철 등 한국 과학사에서 핵심 역할을 한 30명의 이야기가 담겼다. 이들의 삶은 기존 정치사적 이분법으로만 조명되던 인물 서술의 한계를 넘어, 과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됐다.

또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가기록원, 연세대학교 등으로부터 확보한 귀중한 사진과 사료들이 함께 실려 역사적 생생함을 더하고 있다.

김근배 교수는 “그동안 잊혀졌던 한국 근현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조명하고, 과학기술이 단지 기술의 발전을 넘어 역사와 사회를 구성해 온 동력임을 알리고 싶었다”며 “이 책이 현대 한국 과학의 뿌리를 되짚고 미래를 고민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과학기술도서상 시상식

일시: 2025. 5. 9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메디테리움 의학박물관 세미나실 (군자출판사빌딩)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출판진흥원, 출판진흥위원회



지난 9일 파주출판단지 메디테리움 의학박물관에서 과학기술도서상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의 대표 저자인 전북대학교 김근배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NASA 글로벌 캠프 신청하세요”

전북교육청, 중학교 1학년 대상... 내달 19일까지 추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미래 이공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 NASA(NASA) 글로벌 캠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월 17~25일 7박 9일간 미국 워싱턴 D.C와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진행되는 이 캠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 24명과 인솔자 3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자는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다. 각 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선발 과정과 선정 협의를 거쳐 6월 9~19일까지 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 과정은 1단계 서류심사(1.5배수)와 2단계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세계 최대 우주과학 교육기관인 헌츠빌 U.S. 스페이스 앤 로켓 센터에서 NASA 스페이스 캠프를 체험하고, 미국 명문 대학의 과학탐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등 주요 과학·문화시설을 탐방, 선진 과학기술과 문화를 경험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NASA 글로벌 캠프는 학생들에게 우주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와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연수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과학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도서관, 무인 야간대출 서비스 도입

중요도서관 2층과 3층에 비치된 대출 가능 도서를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훈)이 도서관 운영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무인 야간대출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무인 야간대출 서비스는 중앙도서관 2층과 3층에 비치된 대출 가능 도서를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서관 1층 서문에 설치된 무인 야간대출기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은 전북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원하는 도서를 검색한 후, 평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를 받은 후 무인 대출기를 통해 책을 수령하면 된다. 1인당 최대 2권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위해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집까지 제공하는 '책나래서비스' 및 책배달서비스, 자동대출반납기 운영 등 이용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운영되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은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획됐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에는 △도박예방 SNS 챌린지 △숏폼 공모전 △단위학교-SPO(학교전담경찰관) 연계 등하굣길 캠페인 △도박 예방교육 집중운영 등이 이뤄진다.

전북교육청은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학생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박 중독 치유 전문기관(원광대학교병원) 운영을 통해 △도박 중독 중독 위기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생 도박 문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의료적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 및 근절 문화 확산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고선우 교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충칭시에서 열리는 '2025 인공지능 및 지능형 제조 국제학술대회'에 공식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다.

전주대 고선우 교수, 中 충칭 국제학술대회 초청 강연

한·중 AI 교육 협력 결실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인공지능학과 고선우 교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충칭시에서 열리는 '2025 인공지능 및 지능형 제조 국제학술대회(ICAISM 2025)'에 공식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다.

ICAISM(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mart Manufacturing) 2025는 충칭시 교육청과 과학기술협회, 중국진동공학회 등이 공동 주관하며, 'AI로 제조를 강화하고, 스마트한 미래를 이끈다'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지능형 제조의 융합을 집중 조명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중국공정원 원사 판푸성 교수(충칭대), 칭화대 추푸웨이 교수, 영국 셰필드대 천지밍 박사, 그리고 전주대학교 고선우 교수 등 세계 각국의 석학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강연은 전주대와 중국 충칭 지역대학 간의 대년간에 걸친 긴밀한 협력, 그리고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인공지능대학연맹'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고선우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AI 기술 교육 및 융합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생성형 모델에 대해 제시했다.

고선우 교수는 “이번 강연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전주대학교가 추진해 온 한중 간 AI 인재 양성 협력의 상징적 성과이며, 향후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과정 및 연구 플랫폼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다. 고선우 교수는 “이번 강연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전주대학교가 추진해 온 한중 간 AI 인재 양성 협력의 상징적 성과이며, 향후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과정 및 연구 플랫폼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